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내일 금요일은 경제 정보가 없습니다.

[미국 경제]
- Bloomberg: 미 노동 생산성 증가세 둔화
- YahooFinance: 미 고용시장 여전히 견고…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 낮아져
- Bloomberg: 미 실업수당 청구건 소폭 반등…해고는 여전히 낮은 수준

[미국 경제]
- CNBC: 헤지펀드 메니저 Jones, "AI 강세장 앞으로 1~2년 더 지속될 것"

[이란 전쟁]
- Bloomberg: 미국, 이란의 평화안 답변 대기 중… 이스라엘은 레바논 공습

[물류]
- CNBC: 해운사 Maersk, “이란 전쟁 여파 , 수개월 내 커질 것”

[오일]
- YahooFinance: 브렌트유 1백 불 붕괴.. 이란 평화 회당 기대감에
- NYT: 고유가로 저소득층에 타격 심해

[무역 전쟁]
- WSJ: 트럼프의 유럽에 대한 관세 위협, 무역 파트너들에 ‘경종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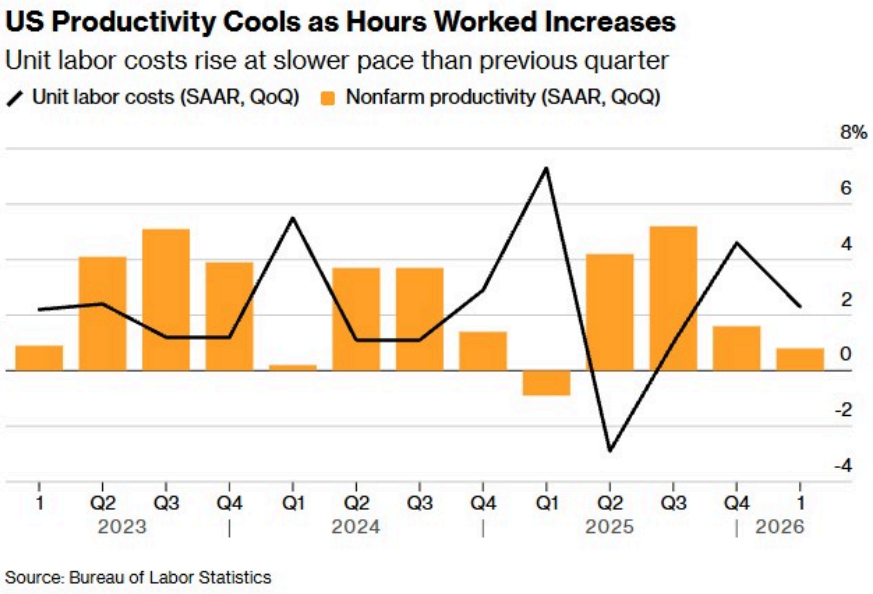
[미국 생활]
- CNBC: 미국인들 “대학 교육 가치 있지만 학비 부담된다”

[오늘의 금융 지표]
- 미 증시 지수, 미국 국채 금리와 주요 환율

[미국 경제]

Bloomberg: US Productivity Growth Cools on Rebound in Hours Worked
미 노동 생산성 증가세 둔화

- 올해 1분기 미국의 노동 생산성이 증가세를 유지했으나, 그 속도는 다소 완만해졌다. 이는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점진적으로 인력 효율성을 개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.
- 연방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, 비농업 부문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연율 0.8% 증가했다. 전년 동기 대비로는 2.9% 상승하며, 2024년 이후 최대 연간 상승 폭을 기록했다.
- 근로자들이 효율적으로 일하면서 기업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었고, 결과적으로 임금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원인이 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.



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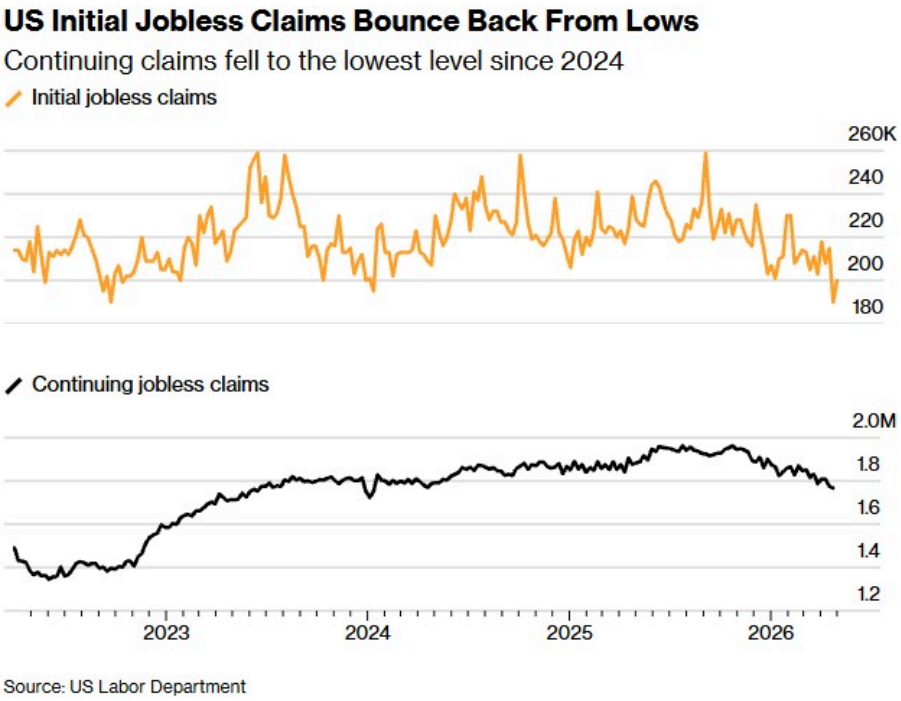
YahooFinance: US labor market stable as layoffs remain low
미 고용시장 여전히 견고…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 낮아져

-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소폭 늘었으나, 낮은 해고율을 유지하며 고용 시장의 안정을 입증했다. 이에 따라 금융시장에서는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.
- 최근 미·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에 따른 유가 충격에도 불구하고, 고용 시장은 아직 뚜렷한 타격을 입지 않은 모습이다.
- 다만 경제학자들은 호르무즈 해협의 물류 차질 등 전쟁으로 인한 추가적인 하방 위험을 여전히 경계하고 있다.

기사

Bloomberg: US Initial Jobless Claims Tick Up After Falling Near Decades Low
미 실업수당 청구건 소폭 반등…해고는 여전히 낮은 수준

-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1만 건 늘어난 20만 건을 기록하며 소폭 반등했다. 이는 당초 시장 예상치인 20만 5천 건보다 낮은 수치로, 최근의 감원 발표에도 불구하고 실제 해고는 여전히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.
- 한편,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'지속적인 실업수당' 청구 건수는 177만 건으로 감소하며 2년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.
- 이는 실직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빠르게 찾고 있음을 시사하며, 미 고용 시장의 강력한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.



기사

[미국 금융]

CNBC: Paul Tudor Jones says AI bull market has ‘another year or two to run’
헤지펀드 메니저 Jones, "AI 강세장 앞으로 1~2년 더 지속될 것"

-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 Paul Tudor Jones는 AI 주도 강세장이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으며, 향후 1~2년 정도 상승세가 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.
- 그는 현재의 시장 상황을 1999년과 비교하며, IT 버블이 정점에 달하기 약 1년 전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. Jones에 따르면 현재 AI 사이클은 전체 과정의 약 50~60% 정도 진행된 상태다.
- 다만, 그는 강세장이 끝날 때의 위험성도 경고했다. "주식 시장이 현재 수준에서 40% 더 상승한다면, 미국 GDP 대비 시가총액 비율이 300~350%에 달하게 될 것"이라며, 이 경우 숨 막힐 정도의 대규모 폭락이 뒤따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.

기사

[이란 전쟁]

Bloomberg: US Waits on Iran’s Peace Deal Response as Israel Strikes Lebanon
미국, 이란의 평화안 답변 대기 중… 이스라엘은 레바논 공습

-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수천 명의 희생자를 낸 전쟁 종식을 골자로 한 평화 제안에 대해 이란 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.
- 소식통에 따르면, 이란은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이틀 내로 공식 답변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.

- 이번 미국의 제안에는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와 이란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일시 중단(모라토리엄)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.
- 한편, 이러한 평화 협상 국면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레바논 내 헤즈볼라 거점을 겨냥한 공습을 단행하며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.

기사

[물류]

CNBC: Maersk shares drop as CEO warns Iran war will have bigger impact in coming months
해운사 Maersk, “이란 전쟁 여파 , 수개월 내 커질 것”

- 글로벌 해운사 Maersk의 CEO Vincent Clerc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고유가 여파로 매달 5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.
- Maersk의 2026년 1분기 에비타(EBITDA·상각 전 영업이익)는 17억 5천만 달러로 하락했으며 이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다.
- Maersk는 이란과의 전쟁이 "불확실성을 한층 더 심화시켰다"라고 경고하며, 향후 전망에 대해 하방 위험(Downside Risk)이 우세하다고 진단했다.

기사

[오일]

YahooFinance: Oil falls below $100 a barrel on Middle East peace hopes
브렌트유 1백 불 붕괴.. 이란 평화 회담 기대감에

- 미·이란 평화협정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기대감이 커지며 국제유가가 목요일 기준 약 4% 급락했다. 이로써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.
- 브렌트유 선물은 3.9% 하락한 97.34달러, 서부텍사스산중질유는 4.2% 내린 91.13달러를 기록했다. 중동 분쟁 종식에 대한 낙관론이 확산되면서 오일 가격이 모두 전날 7% 이상 폭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. .
- 시장은 여전히 변동성이 큰 상태지만, 전쟁 종식 가능성이 유가 하락세를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다.

기사

NYT: Higher Gas Prices Are Hitting Lower-Income Americans the Hardest
고유가로 저소득층에 타격 심해

- 중동 전쟁 여파로 미 평균 휘발유값이 갤런당 4.50달러를 넘어선 가운데, 고유가의 고통이 저소득층에 집중되고 있다. 뉴욕 연준 보고서에 따르면, 소득 수준에 따라 유가 상승을 견디는 행동이 극명하게 갈렸다.
- 고소득층은 기름값이 올라도 소비량을 유지하며 평소처럼 생활했지만, 저소득층은 지출 부담을 이기지 못해 주행 거리를 줄이거나 대중교통으로 갈아타는 등 기름 구매를 강제로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결국 서민들만 유가 상승의 짐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.

기사

[무역 전쟁]

WSJ: Trump’s Latest Tariff Threat Is a Wake-Up Call for U.S. Trade Partners
트럼프의 유럽에 대한 관세 위협, 무역 파트너들에 ‘경종’

- 이번 주부터 유럽산 자동차 및 트럭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%에서 25%로 인상하겠다고 위협했다.
- 이번 조치는 EU가 과거 무역 협정에서 약속한 사항들을 이행하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미국의 불만에서 비롯됐다.
- 이러한 행보는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에게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으며, 이에 대응해 EU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며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. 무역 협정만으로는 자국 우선주의 정책으로부터 보호받기 어렵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.

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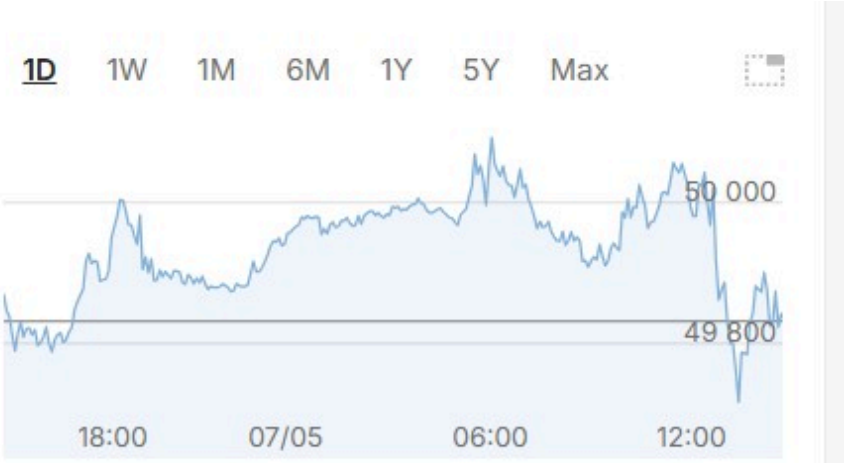
[미국 생활]

CNBC: Families still see college as a good investment — figuring out how to pay for it is the challenge
미국인들 “대학 교육 가치 있지만 학비 부담된다”

- 고등학생 자녀를 둔 대부분의 가정은 대학 교육이 비싼 비용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. 미국 최대 학자금 대출 전문 기업인 Sallie Mae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, 대학 진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여전했다.
- 하지만 계속해서 치솟는 등록금 탓에 학비를 감당하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.
- 조사 결과, 학생과 학부모 10명 중 6명은 고등 교육을 위해 별도의 저축을 하고 있으며, 이들의 평균 저축액은 42,307달러인 것으로 집계됐다.

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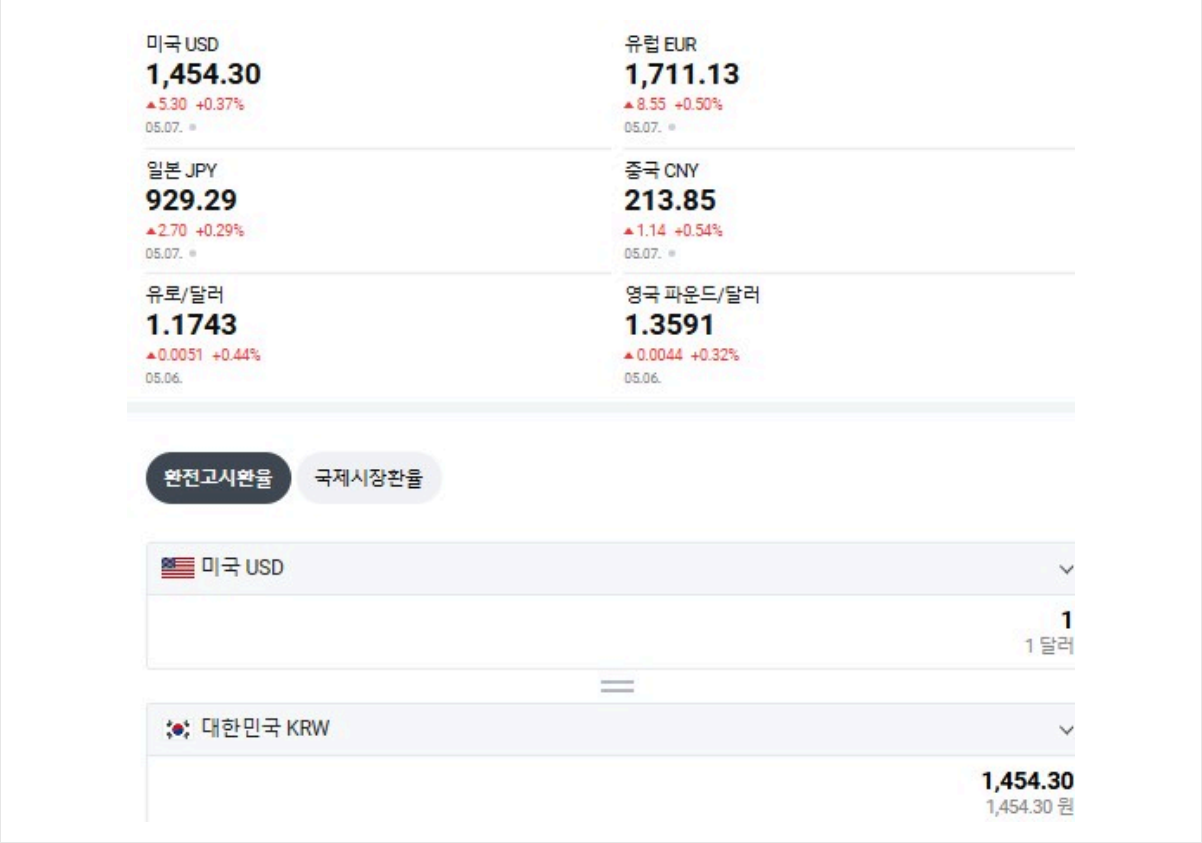
[오늘의 금융 지표: 미 증시 지수, 미 국채, 주요 환율]



US 30	49,837.30	-73.3	-0.15%
US 500	7,372.20	+7.2	+0.10%
Dow Jones	49,821.86	-88.73	-0.18%
S&P 500	7,372.19	+7.07	+0.10%
Nasdaq	25,958.20	+119.26	+0.46%
S&P 500 VIX	17.29	-0.10	-0.58%
Dollar Index	97.79	-0.085	-0.09%

U.S. Treasurys

	COUPON (%)	PRICE CHG	YIELD (%)	YIELD CHG
30-Year Bond	4.75	-24/32	4.952	0.014
10-Year Note	4.125	-1/32	4.367	0.016
7-Year Note	4.125	-1/32	4.189	0.017
5-Year Note	3.875	-1/32	4.015	0.014
3-Year Note	3.875	0/32	3.911	0.015
2-Year Note	3.75	0/32	3.890	0.020
1-Year Bill	0	0/32	3.739	0.016
6-Month Bill	0	0/32	3.707	0.005
3-Month Bill	0	0/32	3.688	-0.001
1-Month Bill	0	0/32	3.649	0.000



KOCHAM | 445 Park Ave | New York, NY 10022 US

Unsubscribe | Constant Contact Data Notice